

●●● 안영기 안일농장 대표

가축사육도 이제는 경영



축산신문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년 교례회가 지난 10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친환경 축산 일환으로 두 번째를 맞은 그린팜 운동 시상식이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 해 동안 축산신문에 게재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 기사들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이날 안영기 안일농장 대표가 농림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영기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일농장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불황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기반

건국대 수의대 출신인 안영기 대표는 축산인 2세로 부친의 농장이 이어 받아 12년째 안일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안일농장은 산란계 18만수 규모로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만 12만개에 달하며 GP센터와 15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액란기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일농장은 500명 규모의 냉장창고를 가지고 있어 시장의 계란물량이 많을 경우 장기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최대 300만개 정도를 보관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한달 처리물량만 해도 500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액란기공공장

의 경우 미래 양계산업을 대비하여 준비해온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안 대표는 계란의 수요확대와 농장수의 증대를 위해서 중소규모의 액란가공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진국의 경우 신선란에서 액란·가공란으로 시장이 변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만간 액란시장이 확대될 것을 바라 보았기 때문이다.

안영기 대표는 냉장창고와 액란가공공장에 대한 자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들면서 그의 생각이 적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냉장창고로 인해 18만수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계란의 품질보존 뿐 아니라 계란유통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유통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선란 유통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대비해 액란과 가공란으로 유통창구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봄과 가을 계절적으로 제빵·제과에서 액란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동안 비축하고 이 시기에 관련업계에 납품을 하면서 이익 증대를 실현해 가며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장기불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친환경 축산 경영을 위한 노력

안영기 대표는 “축산물 생산이 많은 자본과 생산설비가 투자되고 필요하게 되면서 이제는 농사



▲ 박홍수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고 있는 안영기 대표



▲ 안일농장 전경



▲ 저장창고(左)와 선별·포장소(右)모습

가 아닌 식품제조의 개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기축사육도 이제는 경영’이라고 강조한다.

안일농장은 눈에 보이는 시설화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내실을 다져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00년 4월 축산농가에서 생각하기 힘든 ISO9002 인증을 획득에 이어 11월에는 축산환경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 자체 발효시스템으로 시설 가동에 따른 계분처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외부업체에 위탁계약을 맺어 계분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담 수의사에 의한 컨설팅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농장방역체계를 구축해 방역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과거 격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 계군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B사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며 안전한 계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리 | 김영훈 기자)